

濟州島民의 호상옷과 來世觀

高 富 子 *

一. 序

사람은 누구나가 다 천만세를 누리며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인간의 五福 가운데서 그 제일을 “壽”라 하여 長壽에 대한 가치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 선조들이 건축이나 복식 장신구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十長生을 즐겨 그리고 수놓고 조각하여 애용했던 점도 짧은 생을 좀더 연장시켜 보려는 욕망의 일면을 잘 나타내어 주고 있는 예라고 볼 수 있다.

本土 육지와 멀리 떨어진 제주島는 오랫동안 貪官汚吏의 착취와 유배지 또는 本島民을 생산동력의 수단으로 이용하여 왔다. 이런 사회적 인 여건과 특이한 기후조건으로 생활에 쪼들리지만 그런대로 타고난 속

* 檀國大學校 民俗博物館 연구원

1) 高富子, 1971. 濟州島服飾의 民俗學의 研究. 梨花女子大學校 碩士學位논문.

——— 1980. 濟州島 通過儀禮服의 研究. 檀國大學校 碩士學位논문.

명으로 받아들이면서 희망을 안고 살아 온 슬기는 민요나 속담 등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박한 풍토와 지역적인 인습 속에서 이승의 원과 한을 참고 견디어 덕을 쌓고 선을 쌓고 인내를 쌓으면 저승에서 보상 받는다는 기대와 어떤 건박한 환경속에서는 현실을 망각하고자하는 채념이 來世의 동경으로 이어졌다. 필자는 “濟州島 服飾”²⁾을 연구하면서 영원한 피안의 세계 저승에서 입을 옷인 호상옷을 통한 來世觀을 古老들의 談을 통하여 조사하여 보았다.

二. 濟州島 服飾의 特色

제주의 역사는 기원전 65년頃 三姓神話에서 시작되며 上代服飾은 자연발생적인 피부발달 단계로서 皮衣肉食했던 원시시대의 공통성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服飾은 다른 文物의 교류와 함께 차츰 다른 지방에서 유입되어 오기 시작하였으며 육지부 중앙 행정자의 倣效으로 인한 상층 계층의 복식과 본도 토착민의 생활 노동복과의 사이에서 二重구조가 이루어져 혼용하게 되었다. 또한 자연환경적인 여건으로서 바람이 많고 물이 귀하여 발농사와 어업이 생계 수단이 되어 本島 특유의 노동복인 갈옷³⁾과 해녀복⁴⁾ 및 목자(牧者)복⁵⁾의 발생을 가져 왔다.

文化의 양상은 국가 정치적인 면에서 本土 육지부와는 다른 특이한 면을 보이고 있다. 이는 本土 국가의 흥망성쇠에 따라 국호가 변하며 따라서 지배권자가 바뀌었는가 하면⁶⁾ 高麗 元宗 12년(AD 1271년)부터 약 1세기간 三別抄의 영향으로 二重국적인이 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당시의 언어와 풍습이 남아 있다.

그러나 제주島 복식은 육지부의 복식과 기후조건에서 오는 南方系와

2) 3) 4) 高富子, 1971. 濟州島 服飾의 民俗學의 研究.

5) 瀛洲誌, 著者未詳, 麗末朝鮮初?

北方系복식이 혼용 존재하고 있다.

三. 濟州島의 通過儀禮 및 服飾

통과의례는 一生을 통하여 거치게 되는 儀禮를 말하는데 出生儀禮, 成年式, 결혼식, 喪禮의 네 단계를 말한다. 본도에서는 成年式인 冠禮가 생략되고 있다.

(1) 出生儀禮 및 服飾

아기가 태어나면 3일까지 꿇덩이인채 목욕도 시키지 않고 衾⁶⁾에 싸 두었다가 삼일 날 목욕시키고 “붓뒤창옷”⁷⁾을 입힌다. 이 옷은 베로 만든 저고리 형의 홑옷으로 인내성, 강인성, 피부병예방등 吉服으로 여기고 있어 파거 보려 갈 때나 전쟁터에 갈 때 또는 법정에 나갈 때에 등바대로 붙이고 가면 성공한다하여 많이 이용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만들어 입힐 여유가 없어도 반드시 빌려서라도 입혔다. 이 옷을 못 입어 보면 사람축에도 못든다고 한다. 어린아기지만 붓뒤 창옷은 일생에서 거쳐야하는 첫 관문인 삼일날에 최초로 입는 일종의 禮服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生後 3日날 입으면 계속 3.7일간을 입으므로 “3.7일옷” 이라고도 한다. 이런 출산의례나 옷은 메리야스 제품이 나오고 병원에서 출산하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2) 婚禮服⁸⁾

6) 高富子, 1980. 濟州島 通過儀禮服의 研究, pp.14~15.

7) 上揭書, pp.16~21.

8) 上揭書, pp.22~37.

두번째의 통과례이다. 해방전후 본도에서는 “新式”과 “舊式”이라는 말이 유행했다. 新式은 西洋風의 결혼식을 말하며 舊式은 紗帽冠帶 차림의 신랑이 말을 타고, 신부는 원삼입고 족두리를 쓰고 가마를 타고가는 服飾과 교통수단의 외형적인 면을 들어 나온 말이다. 王族의 신분으로 태어나지 못한 恨은 관직자라도 되어 보는 것이었다. 그래서 冠員의 옷인 冠服을 일생 한번 입어보는 것이 소원이었고 그날이 바로 婚禮날 하루뿐이었다. 여자도 관직자의 부인의 大禮服인 원삼입고 족두리를 쓰는 날은 一生에 단한번 婚禮날 뿐이었다. 그래서 높은 관원이라도 신랑신부의 행렬이 지나가면 고개를 숙이고 대우를 해주는 美風이 있었다. 교통이 발달하고 新文化가 보급되면서 지금은 볼 수 없게 되었다.

(3) 死後儀禮服(호상옷)

本島에서는 壽衣를 “호상옷”이라고 부르며 저승에서 입을 最上の 옷으로 생각하고 있다. 시신을 깨끗이 목욕시킨 후 嵩만한 호상옷을 입힌다.

四. 호상옷

(1) 실 태

○ 준비

여유가 있는 집에서는 윤년이나 윤달이 들면 장만하는데 자손이,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마련한다. 갑자기 喪을 당했을 때는 吉日을 택해서 後孫들이 만들게 된다.

○ 재료

明紬가 최고품이다. 대부분이 本島에서 짜는 土明紬를 쓰는데 여유 있는 집에서는 더 좋은 육지부의 것을 쓴다. 명주가 없으면 대신에 베를 쓴다. 가난한 사람들도 무명이나 모시는 쓰지 않는다. 무명은 시신

이 색을 때 까맣게 되며 모시를 쓰면 자손들의 머리에 새치가 생긴다하여 꺼려 했다. 화학섬유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쓰지 않는다. 雜물질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 색 갈

주로 白色을 쓴다. 그러나 반드시 검정색을 써야 하는 곳이 있으므로 피치 못할 경우 외에는 모두 백색을 쓰되 검정색을 준비한다. 여유 있는 집에서는 여자의 호상에는 紅과 綠色을 사용한다.

○ 바느질

재봉틀이 나오면서 재봉틀 바느질도 하지만 되도록 손바느질을 하도록 하며 死後에는 반드시 손바느질을 한다. 뒷바느질이나 상침질을 하지 않으며 매듭도 짓지 않는다. 매듭은 얽혀서 풀리지 않는 것이므로 이승에서 맺힌 한을 풀지 못하고 가면 저승에 가서도 풀지 못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 종류

남자는 복건 도포 창옷 속적삼 저고리 속중이 바지를 갖춰 입으며 이외에 남녀 공통으로 버선 습신(저승신) 베개 명목 천금 지금 과두 오냥 악수 내렴금 소렴금이니 두름포를 준비하며, 여자는 장옷 또는 원삼을 위시해서 치마 둘, 저고리 적삼 각 한벌, 속중이 바지, 굴중이(단속곳) 엄두를 갖추게 된다. 그러나 여유가 없어 호상의 품목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집이 드물며 가난한 노인들은 평소에 입었던 삼베 옷들을 깨끗이 빨아서 둔다. 또한 미처 만들지 못하였으나 갑자기 죽어도 만들 수 있도록 호상 품목에 맞게 옷감을 마련하여 두기도 하며 老婆들은 달비쪽지를 준비하거나 이빨이나 손발톱 머리털을 모아 둔다. 男女 특이하게 다른 점은 女子의 머리에 쓰는 것은 엄두(속칭 엄뒤저고리)라는 女帽(男子의 幅巾과 대응하는 것)를 쓰는데 안은 赤色, 겉은 黑色을 써서 楸으로 되어 있다. 머리에서 어깨까지 덮도록 길게 되었으므로 엄

뒤저고리라고 한다. 또한 명목은 속칭 “검은 호상”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가난한 者라도 다른 옷은 모두 흰색으로 하더라도 이것 만큼은 반드시 검정색을 써야 한다. 곁은 검정으로 안은 붉은색을 써서 곁으로 만들어 얼굴을 씻는데 곁의 검정색은 이승을 다시는 못보게 된다는 현세와의 이별을 뜻하며, 안의 붉은 색은 이승의 자손들의 눈을 밝게 한다는 의미이다. 즉 검정색은 死者와 生者의 구별을 뚜렷이하는 표시인 것이다.

○ 남자 호상옷

겉 옷으로 道袍를 입는다. 도포는 “도복” 또는 “큰옷”으로 부르며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은 결혼과 동시에 成人이 된 표시이며 최상의 大禮服인 것이다. 도포는 평상시 예복으로는 명주 모시 삼베 등으로 만들어 입지만 壽衣의 도포는 반드시 명주로 한다. 도포 안에는 명주 창옷을 입으며 下衣는 속중이에 바지를 입는다. 두루마기는 두루마힌 옷이므로 후손의 길이 막힌다 하여 금기하며 더우기 도포를 간소화한 옷이기 때문 예복의 가치가 없는 옷으로 생각하기 때문 호상옷으로는 입지 않는다. 머리는 상투를 틀고 복건을 씌운다.

○ 여자 호상옷

여자의 호상옷은 婚禮服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혼례복이라는 것은 여자는 일생에 한번 입어보고 치장하여 보기 때문 이승에서 최초의 호사요 마지막 호사인 것이다. 남자는 再婚 때에도 紗帽冠帶를 차릴 수 있으나 여자의 경우는 다르다. 그러므로 살아 한번 호사는 죽어 한번 호사라는 것이다. 혼례복의 변화와 함께 원삼과 장옷의 시대가 있었으나 장옷을 호상옷으로 중요시 여기고 있다. 이는 육지부에서는 원삼이 대예복이지만 本島 여성에게는 실정에 맞게 오래도록 입어온 장옷에 대한 인습이 더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혼례 때에 白色 장

옷을 입고 온 사람들도 호상옷으로 준비할 때는 녹색 바탕에 빨강색으로 끝동과 고름 것을 달아 호사스러운 것으로 바꾸기를 원하며, 치마저고리도 흥치마에 녹색저고리를 최상의 호사로 여기고 있으나 형편에 맞는 대로 준비를 한다.

壽衣의 명칭은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에 따르면 本島에서는 호상옷 저승옷으로 부르나, 지방에 따라 他道에서는 머늬옷 죽으며옷 절수옷등으로 부르고 있으며, 재료는 명주 삼베 광목 비단 무명등이 쓰이는데 경기지방에서는 명주를 쓰지 않는 반면에 본도에서는 명주를 최고품으로 여기며 무명을 금기하고 있는 등 다소의 차이가 있다. 또한 지역적인 차이는 있으나 남자의 옷에 深衣나 여자의 옷에 圓衫 唐衣를 수의로 준비하고 있음이 본도와는 다른 점이다. 이는 재료나 제급 경제적인 여건의 차이이며 本島가 여자 수의에 장옷을 이용하는 것은 他道에서는 볼 수 없는 本島 고유의 특성이라 볼 수 있다.

五. 來世觀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 때문에 번번히 못한 옷을 입고 살았지만 저승에서 입을 옷은 最上의 것을 준비하고자 한다. 이는 이 세상에서는 마지막이요 저승에서는 영원히 입게 되는 옷이므로 본인은 물론 자손들도 온갖 정성을 다해서 장만한다. 과거에는 회갑까지 살면 長壽를 했다하여 큰 잔치를 벌였으며 최고의 옷으로 치장하여 드리는데 이 때에 입는 옷이 호상옷이 되는 것이므로 평소에는 좋지 못한 옷을 입더라도 이때는 빛을 얻어서라도 잘해 드려야 한다. 그것이 자식된 도리이다.⁹⁾

내가 죽으면 입고 갈 저승옷인데 이 옷보다 더 좋은 옷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쯤이 먹지 않도록 하는대는 담뱃잎이 제일이니깐 옷사이 사이에 담뱃잎을 두고 봄 가을 날씨 좋은 날 꺼내서 거풍도 한다.¹⁰⁾

9) 고경수 (男) 1897년생. 제주도 오라2동

10) 고씨 (女) 1879년생. 제주도 오라동

四·三사건¹¹⁾ 때에 도둑 맞거나 불에 탈까봐서 땅속에 잘 묻어 두었는데 물이 들어서 얼룩이 졌지만 이것보다 더 중하고 좋은 것은 없다. 쌀이나 돈은 걱정없지만 죽어 저승갈 때 입을 옷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승에서 저승갈 때 옷 제대로 못 입고 가면 저승서도 사람축에 끼워 주지도 않고 누구 누구는 옷 제대로 못 입고 가서 창피해서 못 다닌다고 자손에게 꿈에 자주 나타나서 못살게 군다고 하는데 모두 자손이 잘못된 탓이다. 또 누구는 “나 피물은 옷 갈아 입혀 달라” 고 꿈에 나타나서 애원하는데 그 집안일이 잘 되질 않는다. 그러니 살았을 때 준비해 뒀다가 죽으로 입는 것이 좋다.¹²⁾

세상에서 官服입었던 官員은 그 옷 입고 저승가야 소용없다. 이 세상 관직을 누가 알아 주는가. 도포가 가장 큰 옷이니 도포를 입고 가야 옳은 일이다¹³⁾

본도는 굶을 많이 한다. 四·三사건때 죽어서 시체를 못 찾은 사람도 많고 세상이 어지러워서 피 묻은 옷도 못 벗긴 채 흙이나 한 줍씩 덮어 버린 일이 많았다. 또 日帝 때 전쟁터에 끌려가서 행방을 모르는 이, 바다에 고기잡이 가서 시체를 못 찾은 이 등 먼곳에 가서 죽은 영혼들이 안착을 못하고 떠돌아 다니면서 산 사람들을 괴롭게하고 집안일이 안되게 한다. 그 원성 가운데는 “배고파 못살겠다. 밥달라” “발가 벗었으니 추워서 못살겠다. 옷달라” “피묻고 더러운 옷 입고 다닐 수 없으니 새 옷 만들어 달라” 고 애원을 하는 일이 제일 많다. 옷을 원하는 귀신에게 옷을 만들어 주면 심방(巫堂)이 입고는 좋아서 “나도 새 옷 입었으니 남들과 같이 다닐 수 있어서 좋다” 면서 어린아이들 새 옷 입고 자랑하듯 뛰면서 좋아한다. 죽은 사람 호상옷 잘 해 입혀야 죽은이

11) 1948년도 제주도에서 발생한 공비만행사건.

12) 정호경(女) 1890년생. 남군 성산면 오조리

13) 高錫泌(男) 1887년생. 제주시.

도 좋고 산사람도 편안해서 잘된다. 그러니 늙은 본인이나 자손들이 어찌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아무리 가난해도 호상옷은 잘 차려야 한다.¹⁴⁾

六. 結

本島民에게 있어서 저승은 彼岸의 세계로서 영원토록 복을 누리며 살 것을 기약해 주는 낙원으로 상징화되어 왔다. 영생불멸의 來世 즉 저승에의 바램과 기대는 가난한 者, 부귀공명을 갖추지 못했던 약자들에게 더욱 그 기대의 값이 큰 것이다. 그래서 이승에서는 굶고 헐벗고 땀 박받는 신세지만 저승에 가면 빈부의 차가 없고 귀천의 차가 없고 幸과 福을 골고루 분배받는 곳, 그러기에 저승은 이승에서 참고 견디며 선을 행하면 무한한 보상을 받는 동경의 세계가 되고 있다. 저승에 가지고 갈 것은 아무것도 없다. 부귀공명도 모두 쓸모없는 것이다. 갈 때는 심판을 하늘에 맡기고 衣冠을 잘 갖춰 가야 할 일 뿐이다. 저승에서 영생토록 입을 호상옷을 입고 가는 것 뿐이다.

갖은 고생을 겪으면서 살았던 濟州島民의 호상옷은 저승에서 영생을 누릴 때 입고 살 최고의 좋은 옷을 준비하고자 하여 다른 어떤 것보다 값어치가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지금도 古老들에게 계속 깊이 간직된 가장 귀한 소장품이 되고 있다.

14) 文癸生(女) 1914년생. 제주시.